

*** 소비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 선호

The preference of Interior Space of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among Apartment

김미희* / Kim, Mi-Hee

이유미** / Lee, You-Mi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explore the preferences of interior space for those living in apartment housing.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ferences of interior space, such as storage space, organization type of LDK(the living room, the dining room, and kitchen), space facing south, an interior garden, the concept of each roo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such as age, educational background employment status of homemakers, occupation of the primary income provider, family-life cycle, total household income, the size of floor space, and homeownership.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t the time of designing apartment housing units,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built-in closets or storage space in the Anbang and to the location of a child's room facing to the south of the dwelling, especially for the families with a child attending primary school or younger and higher education level of homemaker. This study also recommends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living room, the dining room, and the kitchen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housing size and the age of homemaker.

키워드 : apartment housing, user preferences, user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에 급속히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관 및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도시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은 결과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리라 본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형태로서 아파트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반면에 거주자의 욕구는 비교적 단순하여 들어가 살 수 있는 내 공간이라는 의식만 충족시키는 물리적 구조체만 공급되면 되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아파트는 실제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형태라기 보다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공급되어온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제적 변형과 더불어 소비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의 주거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편리한 생활공간과 함께, 지위와 성취의 상징적 역할의 수행까지도 수행해야한다고 요구받게 되었고 이는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¹⁾

아파트는 불특정다수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거주자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거주자 특성 및 주생활양식이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연령, 직업, 소득, 학력, 월 평균소득, 평면규모 등의 거주자 특성 및 주생활양식에 대응한 주택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각 집단별 요구도에 따라 주택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획일적 주거 공급을 탈피하고 아파트 계획의 다각적 접근을 위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실내공간 선호도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실내공간 계획 및 디자인 지침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함에 있다.

* 정회원,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 정회원,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98년도 International Housing Conference에서 발표한 내용임.

1)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논, 1994, p.3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아파트실내공간 선호성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실내공간 선호성향은 어떠한가?

1.3. 문헌고찰

선호란 객관적 평가기준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교육적, 경제적인 측면에 기초를 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말한다.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경향을 조사한 연구들(이연숙외 4인, 1990; 김경미, 1996; 허경화, 1995; 대한주택공사, 199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근교에 위치한 신 주거계획지역의 거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선호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환경요인으로 근린환경권 환경요인과 주택단위/실내디자인 요인을 조사하였다.²⁾ 그 중 주택단위/실내디자인 요인으로는 주택평수, 각 공간크기 및 배치, 실과 욕실의 개수와 같은 평면구조, 붙박이시설, 현관의 이중문, 난방방식, 욕실의 환기시설, 실내조경, 남향배치 선호공간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실, 안방, 자녀침실, 부엌, 식당, 욕실, 다용도실의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욕실의 개수로는 2개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욕조, 세면기, 변기를 모두 갖춘 욕실외에도 간이욕실에 대해 요구가 많았다. 또한 부엌, 식당, 거실의 연결형태 중 부엌, 식당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고 거실이 분리된 형태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남향에 배치하기를 바라는 공간으로는 두 번째로 큰방, 세 번째로 큰방, 부엌, 다용도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미³⁾는 주택의 각 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11개의 실을 설정하여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실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재/취미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내에 수용해야 할 실기능을 13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연구결과, '취미/작업', '독서/공부', '실내정원'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허경화⁴⁾의 연구결과 주택평면에서 원하는 공간으로는 거실, 침실,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의 기초공간 외에도 앞 베란다, 정원, 서재가 높은 빈도로 원하고 있었다. 정원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 발코니에 실내 정원을 조성해서 전망을 살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주택공사⁵⁾는 최근 식당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거실중심의 생활공간이 식당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내공간에 있어서 집단별 선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소비자 특성과 실내공간의 선호성향과의 관련성 연구(지순외 7인, 1987; 신영숙, 1991; 조성희, 1994; 전한중, 1986; 이선미, 1991)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순외 7인⁶⁾은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개인공간에서 작업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관심이 바뀌어 간다고 하였으며, 또한 거실, 식당, 부엌이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⁷⁾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이 경영직과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거실과 현관, 부엌과 식당사이의 칸막이 설치경향이 높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거실의 실내장식의 개성적인 변화를 선호하였으며 넓은 평수에 거주할수록 거실과 부엌, 식당이 구분되는 L-DK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희⁸⁾는 평면형에 따른 주생활실태와 거주자들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부부실 사용을 보이는 방1은 현재보다 좁히고, 거실과 식당/부엌과 같은 가족공동공간에 대해서는 넓히기를 원하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생활의 중심이 과거 안방중심에서 거실중심으로 바뀌면서 보다 넓은 공적공간에 대한 요구와 가사작업의 기계화·단순화 및 그에 따른 수납공간의 요구 등으로 인해 여분의 방보다는 침실외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실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한중⁹⁾은 '집합주택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를 주생활주기의 변화요인으로 보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실면적의 협소, 실수의 부족 등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가 발전됨에 따라 공적생활에서 식침분리, 입식생활의 지향형과 사적생활에서 개실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선미¹⁰⁾는 거주지역별 주거선호성향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규모가 큰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가 작업의 효율성과 수납 기능을 중시하고, 공동공간 보다는 사적공간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되고 있었다. 진보적인 디자인과 실내장식물에 대한 수용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동공간 중심의 배치와 진보적인 디자인수용성향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실내공간 선호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공동공간 구성형태, 남향배치 선호공간, 붙박이시설 선호공간, 실내조경에 대한 선호, 각 실에 대한 개념 등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 특성과 아파트실내공간 선호성향과의 관련성

6) 지순·윤복자·이연숙·유성희·최희재·오찬욱·박혜경·성혜숙, 한국부엌의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한국인의 생활양식 유형분류, 대한가정학회지 25(3), 1987, p.81

7) 신영숙, 도시 중산층 아파트 가구의 생활양식과 실내 의장 태도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2), 1990, pp.58-59

8)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논, 1994

9) 전한중,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원 석논, 1986

10) 이선미, 이상적인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심적 지도의 내용분석연구 - 건실업체 주부설계 공모전 자료를 중심으로 -, 연세대 박논, 1991

2) 이연숙외 4인, 지하주거 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산학협동재단 연구수혜비 미간행 보고서, 1990

3) 김경미, 미래 공동주택 설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기본주택 현황조사와 주택관련종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 연세대 석논, 1996

4) 허경화, 수도권 거주자가 그린 이상적 실내 평면에 나타난 주거선호 경향, 연세대 석논, 1995

5) 대한주택공사, 쾌적한 미래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 1993

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

2.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로서 자녀가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가족생활주기별로 조사대상을 수집하기 위하여 초, 중, 고,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주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광주 소재 G대학에 재학중인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주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을 주부로 제한한 이유는 주거공간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생활을 파악하여 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장 충분히 아는 가족구성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그 내용이 응답자에게 이해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1997년 9월 1일부터 1997년 9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9월 11일부터 1997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34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미비하거나 부실기재된 것과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을 제외한 총 2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가족환경특성과 가족특성,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성향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가족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주택평면규모를 조사하였고, 가족 특성 중의 하나인 가족생활주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딸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였다.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이연숙과 김미희외 2인 1990; 김경미, 1996; 김미희, 1991; 김혜정, 1996) 등을 근거로 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선호하는 공동공간 구성형태, 남향배치 선호공간, 붙박이시설 선호공간, 실내조경에 대한 선호, 각 실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내공간 선호에 대한 문항은 미래경향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5년뒤의 주택선택시를 가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AS Package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내부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부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남편의 직업, 주부의 취업여부, 월 평균소득, 가족생활주기, 주택의 평면규모, 주택의 소유형태 등을 파악하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변인 | 범위 | f | % |
|-------------------------|--------------|-----|-------|
| 남편의 연령 (M=44.5세) | 40세 미만 | 55 | 20.4 |
| | 40-45세 미만 | 75 | 27.7 |
| | 45-50세 미만 | 81 | 30.0 |
| | 50세 이상 | 59 | 21.9 |
| | 계 | 270 | 100.0 |
| 주부의 연령 (M=41.4세) | 40세 미만 | 96 | 35.0 |
| | 40-45세 미만 | 103 | 37.6 |
| | 45세 이상 | 75 | 27.4 |
| | 계 | 274 | 100.0 |
| 남편의 학력 | 고졸이하 | 60 | 22.5 |
| | 대졸 | 118 | 44.2 |
| | 대학원졸 | 89 | 33.3 |
| | 계 | 267 | 100.0 |
| 주부의 학력 | 고졸 이하 | 129 | 47.1 |
| | 대졸 이상 | 145 | 52.9 |
| | 계 | 274 | 100.0 |
| 남편의 직업 | 자영업 | 93 | 36.5 |
| | 전문직 | 68 | 27.2 |
| | 행정관리직 | 42 | 17.6 |
| | 사무직 | 45 | 18.7 |
| | 계 | 248 | 100.0 |
| 주부의 취업여부 | 취업 | 99 | 35.8 |
| | 비취업 | 177 | 64.2 |
| | 계 | 276 | 100.0 |
| 월평균소득 (M=2,617,000원) | 160만원 미만 | 40 | 14.7 |
| | 160-240만원 미만 | 89 | 32.7 |
| | 240-320만원 미만 | 49 | 18.0 |
| | 320만원 이상 | 94 | 34.6 |
| | 계 | 272 | 100.0 |
| 가족생활주기 | 초등교육기이하 | 90 | 34.1 |
| | 중등교육기 | 96 | 36.4 |
| | 자녀성년기 | 78 | 29.5 |
| | 계 | 264 | 100.0 |
| 주택평면규모 (M=38.9평) | 21-30평 미만 | 61 | 22.0 |
| | 30-40평 미만 | 78 | 28.0 |
| | 40-50평 미만 | 74 | 26.6 |
| | 50평 이상 | 65 | 23.4 |
| | 계 | 278 | 100.0 |
| 주택소유형태 | 소유자 | 240 | 86.6 |
| | 임차자 | 37 | 13.4 |
| | 계 | 277 | 100.0 |

3.2.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분석

(1) 선호하는 공동공간 구성형태

공동공간 구성형태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거실이 독립되고 부엌과 식사실이 동일실로 된 형태(71.9%)를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엌, 식사실, 거실이 모두 독립된 형태(17.1%) 즉 독립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 선호하는 공동공간 구성형태에 대한 분포

| 문항 | 분포 | |
|---------------------------------|-----|-------|
| | f | % |
| 거실이 독립되고 부엌과 식당이 동일실로 된 것이 좋다. | 199 | 71.9 |
|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독립된 것이 좋다. | 47 | 17.1 |
|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동일실로 되어있는 것이 좋다. | 15 | 5.5 |
| 부엌이 독립되고 거실에 식당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 15 | 5.5 |
| 계 | 276 | 100.0 |

(2) 남향배치 선호공간

남향배치공간에 대한 선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개의 공간을 제시하고 그 중 어느 공간이 남향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3개 이내로 지적하게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거실이 92.1%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안방이 79.1%, 자녀실이 74.5%의 순이었다.

<표 3> 남향배치 선호공간에 대한 분포

| 문항 | 분포 | |
|------|-----|------|
| | f | % |
| 거실 | 256 | 92.1 |
| 안방 | 220 | 79.1 |
| 자녀실 | 207 | 74.5 |
| 부엌 | 26 | 9.4 |
| 식당 | 15 | 5.4 |
| 현관 | 14 | 5.0 |
| 욕실 | 13 | 4.7 |
| 다용도실 | 13 | 4.7 |

(3) 불박이시설 설치선호공간

불박이시설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박이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공간을 있는 대로 표기하게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박이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는 두 번째로 큰방(72.3%), 다용도실(66.5%), 세 번째로 큰방(60.1%), 부엌(57.2%)이 많이 지적되었다. 여기서 다용도실이 아파트 공급시 의례히 제공해주는 발코니, 현관, 욕실보다 더 높게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용도실이 실제 불박이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알 수 있으며, 대개 다용도실에는 거주자가 임의로 불박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제공시에 융통성있게 제공한다면 거주인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불박이시설이 가장 적게 지적된 공간을 보면 거실, 욕실, 식당이었으며, 이들 공간에는 거주자가 임의대로 불박이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낫다고 본다.

<표 4> 불박이시설 설치선호공간에 대한 분포

| 문항 | 분포 | | 문항 | 분포 | |
|----------|-----|------|-----|-----|------|
| | f | % | | f | % |
| 두 번째로 큰방 | 201 | 72.3 | 발코니 | 115 | 41.4 |
| 다용도실 | 185 | 66.5 | 현관 | 84 | 30.2 |
| 세 번째로 큰방 | 167 | 60.1 | 욕실 | 70 | 25.2 |
| 부엌 | 159 | 57.2 | 식당 | 52 | 18.7 |
| 안방 | 134 | 48.2 | 거실 | 37 | 13.3 |

또한, 안방의 불박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비율이 48.2%라는 것은 안방에 장롱을 배치하는 것에서 불박이시설로 바뀌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4) 실내조경에 대한 선호

실내조경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평소 실내조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4%만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들(89.6%)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집안의 공기나 습도 등의 조절에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74.8%, 자녀들의 정서적 면을 위해서라고 한 경우가 61.9%, 주부들의 정서생활을 위해서라고 한 경우가 38.8%였다.

<표 5> 실내조경의 선호에 대한 분포

| 문항 | 분포 | |
|-------------------------------|-----|------|
| | f | % |
| 집안의 공기나 습도 등의 조절에 유익하므로 필요하다. | 208 | 74.8 |
| 자녀들의 정서적 면을 위하여 필요하다. | 172 | 61.9 |
| 주부들의 정서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 | 108 | 38.8 |
| 평소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 | 29 | 10.4 |

많은 응답자가 실내조경은 실내공기조절이나 가족들의 정서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생활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건조함이라든가 인간의 삭막함을 실내조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선경·안옥희¹¹⁾의 연구에서도 실내조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베란다를 정원용도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5) 각 실에 대한 개념

거실, 식당/부엌, 안방의 실에 대한 개념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거실은 가족간의 휴식, 대화, 오락을 하는 가족단란공간(64.4%)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식당/부엌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42.9%)으로 또한 식사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휴식, 대화를 하는 가족단란공간(37.5%)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안방은 부부만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손님이나 자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곳(81.3%)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표 6> 각 실에 대한 개념분포

| 문항 | 분포 | | |
|-------|----------------|-------|------|
| | f | % | |
| 거실 | 가족단란공간 | 179 | 64.4 |
| | 가족단란+손님접대공간 | 94 | 33.0 |
| | 통로공간 | 4 | 1.4 |
| | 손님접대공간 | 1 | 0.4 |
| 계 | 278 | 100.0 | |
| 식당/부엌 | 식사공간 | 119 | 42.9 |
| | 식사+가족단란공간 | 104 | 37.5 |
| | 식사+가족단란+손님접대공간 | 49 | 17.7 |
| | 가사직업공간 | 5 | 1.9 |
| 계 | 277 | 100.0 | |
| 안방 | 부부공간 | 224 | 81.3 |
| | 가족단란공간 | 42 | 15.3 |
| | 부부+가족단란+손님접대공간 | 8 | 3.0 |
| | 손님접대공간 | 1 | 0.4 |
| 계 | 275 | 100.0 | |

11) 송선경·안옥희, 건축화된 조경공간이 아파트 실내조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지 4(2), 1993, pp.53-54

3.3.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소비자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실내공간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특성에 따라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만을 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실내공간선호의 교차분석요약

| 소비자특성 실내공간특성 | | 주부 연령 | 주부 학력 | 남편 직업 | 주부 취업 여부 | 월 평균 소득 | 가족 생활 주기 | 주택 평면 규모 |
|-----------------|-----------|----------|----------|----------|----------------|---------------|----------------|----------------|
| 공동공간 구성형태 | | 17.43** | NS | NS | NS | NS | NS | NS |
| 남향배치 공간 | 안 방 | NS | 3.93' | NS | NS | NS | NS | NS |
| | 자녀실 | NS | 10.31*** | NS | NS | 8.95' | 13.69*** | 10.44' |
| 불박이시설 필요여부 | | 안 방 | NS | 3.83' | NS | NS | 10.75** | NS |
| 각 실에 대한 개념 | 거 실 | NS | NS | NS | NS | NS | NS | 8.49' |
| | 식당/ 부엌 | NS | NS | NS | NS | NS | NS | 18.29** |

* P < .05 ** P < .01 *** P < .001

주부연령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에서는 공동공간 구성형태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거실이 독립되고 부엌과 식당이 동일실인 형태인 L+DK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독립된 형태인 L+D+K형은 주부의 연령이 45세미만일 경우보다 45세 이상일 경우에 보다 선호하였다. 이는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부엌, 식당, 거실공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성형태를 보다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연령이 40대이상인 경우에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독립된 형태인 L+D+K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연숙(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8> 주부연령별 공동공간 구성형태

| | | N=276 | | | |
|----------|------------|---------------|------------|--------|--|
| 응답범주 | 40세 미만 (%) | 40-45세 미만 (%) | 45세 이상 (%) | 전체 (%) | |
| L+D+K형 | 11.0 | 13.7 | 29.7 | 17.1 | |
| L+DK형 | 82.0 | 73.5 | 56.8 | 72.1 | |
| LD+K형 | 5.0 | 4.9 | 6.8 | 5.4 | |
| 일실형 | 2.0 | 7.9 | 6.7 | 5.4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17.43** | | | | |

** P < .01
 L+D+K형: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독립된 형태
 L+DK형: 거실이 독립되고 부엌과 식당이 동일실인 형태
 LD+K형: 부엌이 독립되고 거실에 식사공간을 할애하는 형태
 일실형: 부엌, 식당, 거실이 모두 동일실로 되어 있는 형태

주부학력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주부학력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실내공간특성으로는 남향배치 선호공간 중 안방과 자녀실, 불박이시설 선호공간 중 안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자녀실과 안방

의 남향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상인 집단에 비해 보다 더 안방과 자녀실을 남향배치하기를 선호하였고 안방에 불박이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부학력별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 | | N=274 | | | |
|--------------|----------|-----------|-----------|--------|--|
| 특성 | 응답범주 | 고졸 이하 (%) | 대졸 이상 (%) | 전체 (%) | |
| 자녀실의 남향배치 | 원한 다. | 65.9 | 82.8 | 74.8 | |
| | 원하지 않는다. | 34.1 | 17.2 | 25.2 | |
| | 계 | 100.0 | 100.0 | 100.0 | |
| χ^2 | | 10.31*** | | | |
| 안방의 남향배치 | 원한 다. | 73.6 | 83.5 | 78.8 | |
| | 원하지 않는다. | 26.4 | 16.5 | 21.2 | |
| | 계 | 100.0 | 100.0 | 100.0 | |
| χ^2 | | 3.93' | | | |
| 안방의 불박이시설 | 필요 | 42.6 | 54.5 | 48.5 | |
| | 불필요 | 57.4 | 45.5 | 51.5 | |
| | 계 | 100.0 | 100.0 | 100.0 | |
| χ^2 | | 3.83' | | | |

* P < .05 *** P < .001

거주자 특성 중 남편직업과 주부취업여부에서는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 평균소득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월 평균소득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실내공간 특성으로는 남향배치 선호공간 중 자녀실, 불박이시설 선호공간 중 부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이 다른 소득수준에 비해 320만원이상인 경우에 자녀실을 남향배치 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엌의 불박이시설에 대한 선호는 높아졌다.

<표 10> 월 평균소득별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 | | N=272 | | | | |
|--------------|----------|------------|----------------|----------------|------------|--------|
| 특성 | 응답범주 | 160 미만 (%) | 160-240 미만 (%) | 240-320 미만 (%) | 320 이상 (%) | 전체 (%) |
| 자녀실의 남향배치 | 원한 다. | 75.0 | 64.0 | 77.6 | 83.0 | 74.6 |
| | 원하지 않는다. | 25.0 | 36.0 | 22.4 | 17.0 | 25.4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8.95' | | | | |

* P < .0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가족생활주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실내공간 특성으로는 남향배치 선호공간 중 자녀실, 불박이시설 선호공간 중 안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 이하일 경우가 다른 단계에 비해 자녀실의 남향배치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안방에 불박이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 이하인 집단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자녀실의 남향배치를 더 원하고 신체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방에 불박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가족생활주기별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N=264

| 특 성 | 응답범주 | 초등교육기이하 (%) | 중등교육기(%) | 자녀성년기(%) | 전체(%) |
|------------------|----------|-------------|----------|----------|-------|
| 자녀실 남향 배치 | 원 한다. | 87.8 | 66.7 | 66.7 | 73.9 |
| | 원하지 않는다. | 12.2 | 33.3 | 33.3 | 26.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13.69** | | | |
| 안방의 불박이 시설 | 필 요 | 62.2 | 38.5 | 46.2 | 48.9 |
| | 불 필 요 | 37.8 | 61.5 | 53.8 | 51.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10.75** | | | |

** P < .01 *** P < .001

<표 12> 주택평면규모별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

N=276

| 특 성 | 응답범주 | 21-30 미만(%) | 30-40 미만(%) | 40-50 미만(%) | 50이상 (%) | 전체 (%) |
|--------------|--------------|----------------|----------------|----------------|-------------|--------|
| 자녀실의 남향배치 | 원 한다. | 61.3 | 72.6 | 80.5 | 85.4 | 74.6 |
| | 원하지 않는다. | 38.7 | 27.4 | 19.5 | 14.6 | 25.4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10.44* | | | | |
| 거실의 개념 | 가족단란공간 | 61.3 | 72.3 | 70.4 | 48.9 | 65.3 |
| | 가족단란+접대공간 | 38.7 | 27.7 | 29.6 | 51.1 | 34.7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8.49* | | | | |
| 식당/부엌의 개념 | 식사공간 | 54.1 | 55.4 | 34.6 | 25.0 | 43.7 |
| | 식사+가족단란공간 | 34.4 | 30.1 | 44.9 | 45.8 | 38.2 |
| | 식사+가족단란+접대공간 | 11.5 | 14.5 | 20.5 | 29.2 | 18.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18.29** | | | | |

* P < .05 ** P < .01

주택평면규모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주택평면규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실내공간특성으로는 남향배치 선호공간 중 자녀실, 불박이시설 선호공간 중 부엌, 각 실에 대한 개념 중 거실과 식당/부엌의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실의 남향배치 선호는 평면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으며, 주택평면규모가 50평이상일 경우에 다른 평수에 비해 부엌에 불박이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각 실의 개념 중 거실의 개념은 평면규모가 50평미만인 경우는 다른 개념에 비해 거실을 가족간의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란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50평이상인 경우는 거실을 가족간의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란공간이나 손님접대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이는 거실의 기능을 가족실과 응접실의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 공간규모가 작을수록 거실공간특성을 가족실의 개념으로 보고 공간규모가 커질수록 그 특성이 응접실의 개념으로 고착된다는

김미희(2)의 연구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각 실의 개념 중 식당/부엌의 개념은 거실의 개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평수가 클수록 식당/부엌을 식사뿐 아니라 가족간의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란공간이외에 손님접대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에 비하여 자녀실의 남향배치와 안방

의 불박이시설을 보다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방과 거실만을 남향에 배치하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자녀실을 남향에 배치하고 안방의 장롱을 불박이 시설로 전환하는 주택계획이 요구되고, 특히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 이하인 집단이 중등교육기나 자녀성년기인 집단에 비하여 자녀실의 남향배치와 안방의 불박이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생활주기 중 초등교육기 이하인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택계획 및 디자인은 자녀실의 남향배치와 안방의 불박이시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및 결론에 의하여 차후의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으로 지역이 광주시로 한정되고, 주택유형이 아파트로 제한되어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주의외의 다른 지역, 아파트이외의 주택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자 특성변인 중 연령과 가족생활주기, 주택평면규모와 월 평균 소득의 상호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특성변인인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만을 보았고, 상대적인 중요성과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연령과 가족생활주기, 주택평면규모와 월 평균 소득간의 상대적 중요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김경미, 미래 공동주택 설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건본주택 현황조사와 주택관련종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6
2. 대한주택공사, 쾌적한 미래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 1993
3. 송성경·안옥희, 건축화된 조정공간이 아파트 실내조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지 4(2), 1993
4. 신영숙, 도시 중산층 아파트 가구의 생활양식과 실내 의장 태도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2), 1991
5. 이선미, 이상적인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심적 지도의 내용분석연구-건설업체 주부설계 공모전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6. 이연숙의 4인, 집합주거 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산학협동재단 연구수혜비 미간행 보고서, 1990
7. 지순·윤복자·이연숙·유성희·최희재·오찬우·박혜경·성혜숙, 한국부엌의 작업태와 수납장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한국인의 생활양식 유형분류, 대한가정학회지 25(3), 1987
8. 전한중,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9.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0. 허경화, 수도권 거주자가 그린 이상적 실내 평면에 나타난 주거선호경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5
11. Low, S.M. and Erve, C, 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 A compara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2. Sanoff, H, 1970, Housing form and preference. EDRA 2;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Proceeding of the Second Annual;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12)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학원 박논, 1991, pp.113-114